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0호 HYUNBULNEWS.COM 2025년 2월 26일(음력 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선명상위원회 활동 박차
'선명상 대중화' 본격화

조계종 미래본부, 선명상위원회 2차 워크숍

청소년 교육 · 글로벌 네트워크 제안
4월1~6일 봉은사서 국제선명상대회
5~9월 지역 확대…10월 컨퍼런스
진우 스님 "선명상으로 불교 중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계종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 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도자 양성 과정 개발'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이 공유됐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2월 17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에서 '선명상위원회 제2차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1월 20일 출범한 선명상위회(위원장 금강 스님) 위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2024년 선명상 주요 사업결과 및 2025년 선명상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미래본부의 브리핑, 선명상 템플스테이 1박 2일 프로그램 및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이 논의됐다.

미래본부는 2025년 주요 선명상 사업으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템플스테이, 단계별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 과정, 법회 동영상, 초중고 교재 개발) △선명상 대중화(2025 국제 선명상대회, 선명상 템플스테이 시행, 법회 식순 반영, 하루5분선명상 캠페인) △홍보(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유튜브 운영)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위원회 각 위원들은 선명상 대중화와 국제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이어갔다. 덕안 스님은 선명상을 국민 정신 행복 운동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08가지 상황별&108가지 종류별 선명상 교재 개발 △108가지 선명상 영상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 국민 대상 보급 전략 등을 설명했다.

정도 스님은 표준화된 선명상 공통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위해 △종단 차원의 표준화된 공통 교육과정 적용 및 인증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청소년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사업도 제안됐다. 정혜 스님과 해인 선명상센터는 육바라밀을 기본 핵심실천 덕목으로 청소년에게 실천적 생활명상을 교육시켜 참교육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생 지도를 위한 영어 선명상전문가 양성을 강조하며 세계화에 발맞출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준한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 및 국제화를 위해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와 국제전법단이 합심, '글로벌 선명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한류 페스티벌 등에 참가해 한류와 결합한 K-명상 확산과 글로벌 홍보에 나설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워크숍에서는 2025국제선명상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됐다.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1~6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개최된다. 봉은사 전각과 체험 부스에서 간화선, 호흡명상, 선명상 음악회, 미디어 아트, 걷기 명상, 요가 명상, VR 명상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제 컨퍼런스 및 폐막식은 10월 중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및 조계사에서 열린다. 선명상과 교육, 학교 교과과정 반영 등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선명상의 효과와 기법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국제 컨퍼런스다. 한국불교 총본산 조계사와 선명상을 접목한 국화축제 등 문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9월에는 지역에서 국제선명상대회가 실시된다. 인천과 경기, 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 제주 등에서 권역별 주요사찰을 선정해 총 8개 사찰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명상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은 총무원장이 되기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선명상이 포교 전법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앞으로 인류는 정신 혁명의 시대로 각 개인이 가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선명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선명상에 접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재임기간 안에 선명상이 뿌리 내려, 선명상이 불교 중흥의 바탕이 되고,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불교를 좋아하고 불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2월 15일 광주 무각사 지장전의 영단에 희생자 영정 30분, 위패 43분을 모시고 합동 49재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영단 앞에서 천도 의식이 진행되는 모습.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49재…"영가 극락왕생"

2월 15일 광주 무각사 지장전서
조계종 주최, 호남 교구본사 동참
영가 극락왕생, 유가족 치유 발원

진우 스님 "업장 소멸 후 돌아와
봄 맞이하고 영생의 꽃 피워주길"
비구니회도 14일 천도재로 추모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사고로 전소하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국내에서 발발한 항공사고 중 가장 많은 인명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로 전국적인 애도 물결이 흘렀다. 참사 이후 애도문을 발표하며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조계종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49재를 봉행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5일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 스님) 지장전의 영단에 희생자 영정 30분, 위패 43분을 모시고 합동 49재 천도의식을 봉행했다. 현장에는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가 동참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치유를 발원했다.

천도의식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고금 스님이 사회를 맡아 조계종 어산종장 덕림 스님이 집전했다. △추모의 타종 5타 △대령 △관욕 △상단불공(천수바라무, 나비무, 화청) △추모사(총무원장 진우 스님) △화엄시식(헌향, 헌화, 헌다) △소전의식 △유가족 인사 등으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4분은 하늘과 땅 위 모든 이들이 함께 슬픔에 젖은 날"이라며 "시간이 지나도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슬픔을 덮을 수도 없었고, 일상의 행복은 감히 누릴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영가들을 위해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면서 "이제 허망하고 덧없는 육신의 꺼풀을 벗어버렸으니 금강석처럼 견고해 무너지지 않는 본래 성품이 무엇인지 살피고, 생전 업장을 모두 소멸하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극락왕생 발원문에서 "희생영가들은 오늘의 인연공덕을 바탕으로 생전에 못한 공덕이 원만해지고 지은 허물 모두 소멸해 극락정토에 왕생하길 기원한다"고 서원했다.

유가족을 대표한 김무오 영가의 누나 김샤리 씨는 "누나를 비롯한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울더라도 너를 위함이니 엄마가 먼저 갔던 그 길로 잘 가라"며 "항상 웃고 사람 잘 챙기며 여행을 좋아했던 동생이 엄마를 먼저 만나러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잘 견뎌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는 "희생된 모든 이들이 고통없고 아픔없는 곳으로 훨훨 날아가 극락왕생하길 바라고 또 바란다"고 발원했다.

정치권에서도 추모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신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가족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대신한 김정현 광주시 당 위원장은 "참사의 진상과 원인 규명을 거쳐 우리 곁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49재 천도의식은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사진을 태우는 소전의식으로 마무리됐다. 소대의 영단에 위패와 영정을 둔 사부대중은 "나무아미타불"을 정근하며 영가에게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 위패와 영정사진, 유품 등은 소대 위에서 사라지며 이생과의 연을 마쳤다.

하루 전날인 2월 14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도 서울 법룡사 만불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도재는 어산종장이자 중요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이뤄졌다.

스님은 염불과 천도의식으로 고인들의 해탈을 기원했고,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스님과 불자들은 영단에 향을 올리며 희생자들의 편안한 안식을 간절히 기도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태평무 이수자 강준영 무용가도 살풀이춤으로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광용 스님은 "같은 국민을, 같은 동체를 떠나버렸다는 것이 슬프지만, 부처님 염불 공덕으로 희생자들을 품어 바른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원할 것 같던 내 몸은 무상하고, 의식체계도 허공과 같다. 극락에 이르는 길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길은 만 갈래로 가득 차 있다"며 "희생자들이 고통없는 극락세계로 나아가고, 나고 죽음이 없는 평안하고 안락한 천상에 이르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5학년도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화엄 종주 의상조사의 창건 이념을 계승한 「화엄경」사상과 경허선사께서 오래 주석 하시면서 비롯된 선풍을 계승한 범어사 승가대학에서는 2025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_ 사미, 비구
■ 모집기간_ ~ 2025년 3월 31일까지 (※사전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_ 1) 입방지원서 및 신상명세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서약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3)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2025년 사미계 수지자는 생략 가능)
4) 사미증 사본
5) 사진(만의복장, 3×4규격) -3장
■ 준 비 물_ 만의(사미), 장삼
■ 전 형_ 서류심사, 면접(추후 개별 연락)



■ 특 전_
● 강의교재 구입비 및 신입생 최신형 아이패드 지원
● 졸업여행 인도 부처님 성지순례 지원(약 10일) 또는 해외연수비용 지원
● 신입생 입학금 면제, 신입생 및 편입생 매월 최고 수준의 수행비 지원
● 화엄경 특강(화엄경 연구원 대강백 무비큰스님) 및 선지식분들의 특별법문 참여가능
● 학습시간 및 여가시간 보장
● 전학년 경전 강의 및 영어 수업, 염불 수업 진행
● 동국대 병원 MOU체결, 병원비 약품비 지원
● 강원 스타렉스 차량 지원
● 안거 반철 부산지역 사찰순례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용품 지원
● 부산 도심의 접근성 용이(관공서 및 병원 등)
-셔틀버스 운행 -시내버스 이용 -강원 차량 이용

■ 원서교부 및 접수_ 범어사승가대학 051)508-3127,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승가대학
방장 여산정여 대종사 · 주지 정오 · 학장 도산